

당서초
6-7
최현준

2013년 5월 12일 (일요일)

날씨 : 완전 좋음 맑음

제목 : 내 생애 가장 뜻 깊은 일

금요일에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나라를 대표하여 일기를 써오라고 하셨다. 날짜는 바로 오늘 5월 12일이다. 오늘은 나의 생일 이었다. 생일 일기가 미래에도 보존 되겠지... 그럼 지금부터 오늘 일기를 시작 하겠다.

오늘은 일요일 과학학원에 가는 날이다. 생일에 무슨 학원 이람... 그것도 일요일에!! 아무튼 이번 수업은 화학이었다. 빅뱅이 일어나고 쿼크, 양성자 중성자, 수소... 이려운 말 투성이다. 학원 선생님께서 머리도 식힐겸 생일 선물로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오셨다. 선물 아여서 그런지 더 맛있었다. 학원에서 수업이 끝나고 아빠한테 전화를 했다. 그랬더니 가족이 모두 차를 타고 나를 데릴러 왔다. 차를 타고 타임스퀘어에 갔다. 고모부도 오늘 생신이였기 때문이다. 늘 파티를 같이한다. 고모부 생일 선물로 교보문고에서 명함 케이스를 샀다.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았다. 내 생일선물로는 동생이 가방을 사줬다. 마음에 쏙드는 가방이었다. 쇼핑을 하고 바로 밥을 먹으러 갔다. 차를 타고 경기도 양평군 까지 1시간 30분이나 걸려 갔다. 음식은 바로! 한우 였다. 비싸긴 했지만 맛있었다. 음식점에 있는 인공 연못에서 분수가 나오고 있었다. 보기 좋았다. 다시 돌아가는데 차가 너무 막혔다. 맨 앞차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고모네 집에 도착했다. 생일 케이크를 맛있게 먹고 고등학생인 사촌 형과 함께 단천으로 농구를 하러 갔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불편했다. 농구를 하는데 내가 당연히 질 줄 알았는데 5점 내기에서 2:1로 이겼다. 예기긴 했지만 형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것 같다.. 그래도 내가 이겼다. 한 8시 30분에 고모 집으로 돌아갔다. 고모네 집에서 물을 마시고 바로 우리 집으로 돌아왔다. 밀린 숙제를 해야 된다.. 내일은 시험이어서 시험 공부도 해야 하는데.. 아무튼 이상으로 2013년 5월 12일 하루를 마칠 것이다.

미래에 이 일가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